

나주시, 도내 최초 학대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국립나주병원·나주종합병원·빛가람종합병원 지정...업무협약 체결 응급 의료 조치 및 정기 검진·상담 등 체계적 의료지원 체계 구축

나주시가 도내 최초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나주시는 12일 국립나주병원, 나주 종합병원, 빛가람종합병원과 의료사 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강인규 시장, 정하란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과장, 정영중 나

주종합병원장, 오경규 빛가람종합병원장이 참석했다.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개 병원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조치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검진 치료, 의료비와 심리치료, 사례판단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

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지자체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과 전담요원 등 3명이 배치돼 아동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판단, 응급보호, 원 가정 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사건 급증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 피해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제40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작품 모집

융·복합제품(일반인) 및 실용디자인(대학생) 분야 공모

담양군이 우수 대나무공예품을 발굴하고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제40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개최에 따른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공예대전은 생활속의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한 대나무공예품이 참가 대상이며 ▲융·복합제품

(일반인)분야 ▲실용디자인(대학생) 분야로 나뉘어 실시, 대나무공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작은 상품화 가능한 부가가치 높은 관광기념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인테리어용품 등 대나무를 소재로 한 창작품은 모두 출품 가능하다.

원서 교부는 오는 6월 18일까지이며, 접수는 6월 17~18일 이틀간 대나무자연연구소(한국대나무박물관)를 방문하거나 우편, 택배 등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실물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단, 국내외에서 이미 상품화 됐거나 타 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한 작품, 다른 작품을 표절한 작품, 파손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작품 등은 출품이

제한된다. 수상작은 실용성, 창의성, 상품성, 작품성 등 심사항목을 대상으로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 디자인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2021. 7. 5. ~ 8. 31까지 담주예술구 예주공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나 대나무자연연구소(☎061-380-29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청소년 지원사업 '올해도 풍성하게'

2개소 청소년시설 운영

장성군이 옐로우시티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해 올해도 아낌없이 지원한다. 올해 장성군은 청소년의 성장·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과 다양한 경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먼저 2016년 10월에 개관한 장성군 청소년수련관은 도내 8개 시·군에서 만 운영 중인 전문 청소년시설이다. 지상 3층으로 체육실, 동아리실, 교육실, 노래연습실, 북카페 등 수준 높은 시설을 갖춘 물론 청소년지도사가 수련활동, 자치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급식 지원 등 방과 후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2년 8월에 개관한 장



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 복지, 자활, 의료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한다. 특히 1388청소년 상담전화 운영하여 가출, 폭력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 및 보호하여 청소년 복지 전문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시설 모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다. 위치 또한 수련관 건물 내에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장성군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9대, 전기화물차 10대로,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 보조금은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52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8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 법인·단체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청년 농업인 자율공모사업 면접 오는 17일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서 사업계획 발표해야

곡성군이 청년 농업인 자율공모사업 면접을 17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자율공모사업은 농업(생산, 가공, 판매) 분야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19세~49세 이하여야 한다. 곡성군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연초부터 지난 2월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5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17일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청년 농업인 자율공모 사업 발표회'를 통해 자

신의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심사는 농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이 맡게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 점수 합계 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된다. 최종 선발은 고득점자 순으로 4명을 선발한다. 하지만 60점 이상 득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점 미만일 경우 상위 4명 안에 들어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농업인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